산업체 특강 보고서

주제 : 소통, 공감, 배려 : 4차 산업혁명 인재상

20130940 장용훈

처음 교수님을 봤을 때 깜짝 놀랐다. 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한국에 오가고 본인 분야에서 이름있는 석학이심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이시지 않고, 소통을 중요시하셔서 느낌이 좋았다. 그렇게 교수님이 강연에 빠져들었다.

주된 주제가 교수님의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그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첫번째로 뉴욕의 화장실 지도였다. 뉴욕의 지도에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 간단한 아이디어 였지만,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에 놀라웠다. 교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구글에서 이런 지도를 만들었다는 점이 놀라움을 뒷받침 해준다. 두번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커뮤니티 매핑에 관한 이야기였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이슈인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미세먼지의 관한 프로젝트를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지하셨기에 이를 알리기 위해 한다고 하셨다. 이 프로젝트는 꽤나 재미있어 보인다. 각 학교나 공공시설에 미세먼지 탐지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한다. 마지막 학기만 아니라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외에도 커뮤니티 매핑으로 평창 올림픽 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지도에 매핑하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끝으로, 단순 코더가 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는 생각을 많이 하라는 점에 감명 받았다. ‘이런 인재가 되어야겠다는’ 목표의식이 생겼다.